

'맞다'의 분석

정대현
이화여대 철학과

Toward a Definition of Fitting

Daihyun Chung
Philosophy, Ewha Womans University

이 연구는 '맞다'가 의미론적 기본개념으로서의 진리에 대한 대체후보가 될수 있는가의 물음을 배경으로 삼고 이 논문에서는 맞음의 개념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다음의 다섯가지를 일차적으로 고찰한다. (1) '맞다'에 대한 일상언어분석을 통하여 이것은 두자리 관계술어라는 점을 보이고 (2) 단어의 표면적 다의성은 그 반대어인 '틀리다'의 분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3) 맞음은 대칭적 논리구조를 일반적으로 가지지만 화자의 관심에 의해 비대칭적 구조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4) '맞다'라는 단어를해명할 수 있는 세가지 후보를 필요충분조건적 해석, 의미론적 접근, 표준문적 고찰에서 탐구하여 보지만 (5) '맞다'에 대한 진화론적 해석이 의미론적 기초개념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I. 문제제기

팔리는 유리구두를 몇번이나 신어보려 애쓰다가 결국 대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구두는 내게 맞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구두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콩쥐에게는 유리구두가 꼭 '맞았다. 이 강경을 지켜보던 대신은 '이 구두에 발이 맞는 사람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며 필듯이 기뻐하였다. 이제 왕자는 자기와 맞는 짝 콩쥐를 찾았으니 이 들은 행복한 한쌍의 부부로서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

'맞다'라는 단어는 한국어에서 하나의 중요한 기본개념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좋다'라는 단어가 가치나 태도의 문맥에서 하나의 기본 개념을 표시하는 것 처럼 '맞다'라는 단어도 인식이나 의미 또는 인지의 문맥에 있어서 그 비슷한 위치를 찾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좋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있어 왔던 전통을 미루어 보아 '맞다'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그러한 심박한 분석이 적어도 시도될 수 있음즉 한것으로생각된다. '맞다'라는 단어에 대한. 전통적 간과는 다른 개념들 이물테면 확실성, 진리, 실용성 등이 더 기본적이라고 상정하는데서 이허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맞음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이다. 이 것이 무엇이기에 의미와 인식의 문맥에서 기본적이라고 본적 개념일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선결과제는 맞음의 개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제안하여 보는 일이다. 구성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리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좋음의 개념에 대한 여러가지 구성들이 그 좋은 선례를 주고 있다.

맞음의 개념은 어떻게 구성하여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에서의 '맞다'라는 단어와 그 유관어휘들에 대해 첫째는 단어의 애매성과 그 사용방식의 관찰을 통한 언어분석을 하는 일이고 둘째는 이 단어가 나타내는 구조 및 그 인식논리를 캐어내는 논리분석을 하여보는 일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맞음이라는 개념의 구조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II. 단어의 사용방식

'맞다'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의 뜻을 가지거나 유의어를 갖는 것으로 적고 있다: (i) 옳다, 바르다, 정확하다; (ii) 어울리다, 짜이다, 조화하다, 적합하다; (iii) 들다, 맞갖다; (iv) 일치하다, 합치하다; (v) 명중하다; (vi) 통하다. '맞다'라는 단어가 이러한 여러가지 뜻을 갖는다는 것은 시사적이다.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은 이러한 초견적 다의성은 넘고 지나가야하는 하나의 장애로 닦아낸다. 이러한 여러가지 의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서로로부터 독립하여 다른 의미들일 뿐인가? 사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시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의 과제는 '맞다'라는 단어와 그 관련어나 의미에 대하여 그 언어본적을 통하여 어떤 통일적 그림을 그려 보는 일이다.

먼저 '맞다'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몇가지 들여다 보도록 하자.

- (1) 이 유리구두는 팔찌의 발에 맞는다.
- (2) '박정희씨는 루데타의 군인이다'는 맞는 말이다.
- (3) '이순신은 용감하다'와 '이순신은 육포에서 후퇴하였다'는 맞지 않는 말이다.
- (4) '물은 H2O 이다'는 맞는 말이다.
- (5) 지방자치제는 맞는 정책이다.
- (6) 이 이론은 맞다.

이 사례들은 몇가지 관찰을 허용한다. 첫째는 '맞다'라는 술어가 하나의 관계술어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1)사태와 사태, (2)사태와 문장, (3)문장과 문장, (4)문장과 사태의 본질, (5)사태와 어떤 기준, (6)이론과 해석 등의 다양한 항목들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두째는 '맞다'라는 술어가 두자리 술어라는 것이다. (1)의 경우는 그 두자리가 이 유리구두와 '팔찌의 발'이다. (3)도 그 두자리가 이미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2), (4), (5), (6)의 경우는 한 자리가 생략되어 있지만 심층적으로 두 자리의 어떤 값에 대한 술어임을 알 수 있다. 생략된 자리들은 사태일 수도 있고 기준이나 해석일 수 있다.

III. 단어의 애매성

위의 두 가지 관찰은 적어도 하나의 문맥에 봉착한다. '맞다'라는 단어가 여섯가지의 다른 문맥 안에서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가 아니면 여섯가지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의미로 쓰이는가 라는 물음이다. 이들이 다른 의미들로서 쓰인다면 다의성(equivocation)의 오류를 저지르는 위험이 있는 것이고 하나의 의미로써 여러가지 문맥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위한 논의가 보여져야 할 것이다.

다의성에 대한 지지는 쉽게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맞다'라는 단어가 (1)사태와 사태, (2)사태와 문장, (3)문장과 문장, (4)문장과 사태의 본질, (5)사태와 어떤 기준, (6)이론과 해석 등의 다양한 항목들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이들간의 그러한 상이성을 무시한다면 그러한 다양한 문맥들간의 차이를 간 과하는 범주오류를 저지르는 것이 되리라는 것이다.

'맞다'라는 단어의 애매성 논제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하나의 반박은 다음과 같은 고려에 의해 시사될 수 있을 것이다. '김씨는 좋아한다'라는 한 자리 술어에 대해 어떠한 항목들이 그 논의의 자리에 들어 올 수 있는가? 가능한 후보로는 '박씨', '바둑이', '바다', '보석' 등이다. 이들은 다른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다. 이들이 다른 범주로 인정된다고 하여 그 경우마다 '김씨는 좋아한다'라는 술어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여야 하는가? 예를 들어, 좋아하는 방식이 경우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다를 수 밖에 없다라고 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의 직관은 이 물음에 대해 부정적이다.

'맞다'라는 단어가 그 여러가지 문맥에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다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가? 하나의 논의는 위의 여섯 경우들에서의 '맞다'라는 단어의 반대어가 무엇들일 것인가라는 것이다. 만일 그 여섯 경우들이 모두 다른 의미들을 갖는다면 이들은 반대어를 갖는 경우 다른 반대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손'이라는 단어가 팔의 부분의 뜻도 가지지만 과객의 뜻도 가지는 경우 이들은 각기 '발'과 '주인'이라는 다른 반대어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맞

다'의 경우 여섯가지 문맥에서 그 반대어는 모두 '틀리다'이다. 우리는 여섯가지 다른 문맥에서 '맞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의 관찰은 '맞다'의 여섯 문맥에서의 의미는 다른 단어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전에서 적은 의미나 유의어들, 그리고 '달다', '비슷하다', '가깝다' 등의 단어들 있지만 그 어떤 단어로도 환원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러한 비환원성이 주장될 수 있다면 '맞다'라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에서 기초적 어휘라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여섯가지 문맥에서의 맞춤 개념의 구조가 더욱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개념이 다른 개념을 상정하는가의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IV. 대칭성

말의 여섯가지 문맥 (1)에서 (6)의 경우들이 '맞다'라는 단어가 두자리 술어라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일반화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7) Fab: a는 b와 맞는다

그러나 콩쥐는 유리구두에 발은 맞지 않지만 그 화려한 옷색깔은 유리구두에 맞을 수 있다. 또한 팔쥐는 발이 구두엔 맞지만 그 누추한 옷색깔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맞춤은 단순히 두 개체간의 비제약적 관계라기 보다는 어떤 조건하에서의 관계라고 보이며 따라서 이를 온전한 관계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맞춤을 단순한 두자리 술어로서 보다는 그러한 조건을 포함하는 두 자리 술어로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닐가하고 생각한다. 달리 말하여 맞춤은 단순히 '팔쥐'와 '유리구두'의 관계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여 '팔쥐의 발'과 '유리구두'의 관계도아니다. 이것은 '팔쥐'와 '유리구두'와 이 양자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구조의 자리(p)'의 제한속에서의 이자 관계라는 것이다.

(8) Fab(p): a는 b와 s자리에서 맞다

팔쥐가 p에서 유리구두에 맞으면 유리구두는 p에서 팔쥐에 맞아야 할 것이다. 그 역도 성립한다. 그렇다면 맞춤은 대칭적으로 보인다.

(9) Fab(p) <-> Fba(p)

여기에 문제는 없는가? 다음과 같은 상황은 어떻

게 처리할 것인가? 왕궁의 대신은 왕자가 준 유리구두를 가지고 어느 마을에 와서 콩쥐에게 '당신은 틀린 발을 가지고 왔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발가게 주인은 손님에게 '당신은 틀린 발을 가지고 왔오'라고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맞춤의 관계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단순한 대칭적 관계로 처리될 수 없음을 보인다. 왕궁대신이나 신발가게 주인의 그러한 언명은 a와 b에 대한 맞춤의 대칭관계를 가정하지만 언명에 있어서 관심(focus)이 어느 한 자리에 주어진 한에서는 관심이전의 대칭관계는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화자(s)의 관심이 규정되거나 상정된 문맥에서는 맞다의 개념은 대칭적일 수 없다.

(10) -(Fab(ps) <-> Fba(ps))

대칭성의 구조를 유지하는 맞춤의 관계 (9)를 '대칭적' 또는 '대등적' 맞춤의 관계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것 (10)을 '비대칭적' 또는 '방향적' 맞춤의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 맞춤의 인식논리

'a는 b와 p에서 맞다'라고 말할 때 'x는 b와 p에서 맞다'라는 술어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 술어는 어떠한 종류의 것인가? '동그랗다', '호랑이다'와 같은 일차적 술어인가? 또는 '빨갳다', '달다'와 같은 이차적 술어인가? 만일 이러한 자연적 술어가 아니라면 '크다', '가볍다'와 같은 등급적 술어인가? 이러한 물음이 자연스러운 까닭은 이 것이 어떠한 술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 단어에 대한 사용의 기준이 다를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술어를 배우는 과정이 달리 기술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이 솟 삼각 블록은 저 암 삼각물에 맞다'의 경우를 주시하여 맞춤이 자연적 술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혹은 '학생들의 최근 주장은 운동권안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현재의 시국에서 볼때 틀린 말이다'의 경우를 고려할 때 이것은 등급의 술어로 보인다. '상진이면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면 상진이다'에서는 맞다라는 경우를 고려할 때 이것은 등급의 술어로 보인다. '상진이면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면 상진이다'에서는 맞다라는 술어가 절대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맞춤은 여러가지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i) 맞음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희망적인 방식은 이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의해 시사되는 것으로 보인다. 초전적 제안은

- (11) x 는 b 와 같은 p 의 구조를 갖는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만 x 는 b 와 p 에서 맞다

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은 다음과 같은 이행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달리 말해 이 조건은 세 개의 대상 a 와 b 와 c 가 p 의 구조에서 처음의 두개가 맞고 뒤의 두개가 맞다면 첫째와 세째가 맞다라고 하여야 한다. 달리 말해 팔위의 발과 유리구두와 팔위의 북은 신발에 대해 첫째와 세째가 맞다라고 해야한다. 그렇다면 위의 조건은 달리 수정되어야 한다.

- (12) x 는 b 가 가지고 있는 p 의 구조를 역으로 갖는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만 x 는 b 와 p 에서 맞다.

이 구성은 맞음이 이행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위의 문제를 극복하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조건은 맞음의 이해를 위하여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구성은 맞음의 사례적 경우(token)에 적용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맞음의 일반(type)적 개념의 구성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 (13) x 는 y 가 가지고 있는 z 의 구조를 역으로 갖는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만 x 는 y 와 z 에서 맞다

의 조건이 초전상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맞음의 모든 경우에 요구되고 만족스러운 그러한 단일 조건으로서의 z 조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은 다음과 같은 선접조건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14) x 는 y 가 가지고 있는 $(z_1 \vee z_2 \vee \dots \vee z_n)$ 의 구조를 역으로 갖는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만 x 는 y 와 $(z_1 \vee z_2 \vee \dots \vee z_n)$ 에서 맞다.

그러나 이것이 맞음 개념의 구조와 양립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별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무 형식적이어서 궁허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맞다'라는 단어를 배울 수 있다는 방식과는 정 반대의 과정을 기술한다. 이 방식은 그 많은 수 i 에 대한 조건들 z_i 를 완성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인데도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완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맞음에 대한 세가지 접근방식이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것이다. 만일 그러하다면 이러한 접근에 의한 결과가 어떠한 것일가를 살펴 봄으로써 하나의 입장을 지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는 비트겐슈타인이 '고통중에 있다(being in pain)'라는 표현에 대한 표준론적(criteriological) 접근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타르스키가 진리에 대하여 취한 의미론적(semantic) 해석의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것은 '진화론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다.

- (ii) '맞다'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은 맞음의 관계를 규약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 (1) 이 유리구두는 팔위의 발에 맞는다

에서의 '맞다'의 의미를 규명한다고 하자. 이것은 단순하게

- (15) 이 유리구두는 팔위의 발에 맞는다의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만 '이 유리구두는 팔위의 발에 맞는다'는 참이다

에서처럼 '맞다'를 참으로 말할 수 있는 진리조건에 의해서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 (16) 이 대상이 유리구두인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만 '유리구두'라는 표현이 이 대상을 만족한다;

- (17) 이 유리구두는 팔위의 발에 맞는다의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만 '팔위의 발에 맞는다'라는 표현이 이 유리구두를 만족한다;

와 같은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맞다'에 대한 사용규약의 서술적 분석이다. 이 분석은 그 자체로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만일 '맞다'라는 단어가 의미론적으로 기본적인다면 이 분석은 그러한 구조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단어가 기초적일 수 있다면 언어의 다른 부분들이 이에 의해 의미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보여져야 할 것이다.

(iii) 표준론적 해석이 '맞다'에 대해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준론적 해석은 필요충분조건적 해석과 의미론적 해석의 결합형으로 보인다. 두 해석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조건적 측면과 언어적 조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18) x 는 y 가 가지고 있는 $(z_1 \vee z_2 \vee \dots \vee z_n)$ 의 구조를 역으로 갖는 경우 'x는

y와 (z1 v z2 v . . . v zn) 에서 '맞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충분조건적 해석 (14)와 다른 점은 '경우'라는 접속사의 앞과 뒤가 사실적 조건을 나타내는 명제들이 아니라 그 앞은 사실적 조건임에 반해서 뒤는 언어적 상황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론적 해석과 다른 점은 말할 수 있는 표준인가 아니면 의미의 조건인가의 차이이다. 미소라는 사실적 조건과 '행복'이라는 표현과의 관계를 보자. 양자는 의미론적인 관계로 해석될 수도 있고 표준론적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19) 김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행복하지 않다
 라는 문장은 의미론적 해석에서는 자기모순이 되어야 하지만 표준론적 해석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표준론적 해석은 앞의 두 해석에 대해서 실제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전제하는 규칙의 성질에 의해 규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체계내적 설명이고 의미론적 기초개념의 후보설명으로서 미흡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V. 진화론적 구성

'맞다'라는 단어는 위에서와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이것이 의미론적으로 기초적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지 않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단어의 이해가 진화론적 구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맞다'라는 단어가 표시하는 성질이 일차적으로 다른 의미론적 표현에 의존하여 설명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에서의 세 가지 설명모델과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자. 끼워 맞추기 놀이에서 凹형 삼각형이 凸형 삼각형에 '맞다'라고 할 때 이 관계의 성질은 두개의 실체가 서로에 대하여 가지는 역구조에서의 상호공유하는 성질이다. 이 성질은 다른 제 3자의 언어적 표현에 호소함이 없이 현시적으로 지시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맞다'라는 단어는 이리하여 어떠한 언어적 어휘의 배경이 없이도 습득될 수 있는 기초적 단어가 된

다. 다른 언어적 배경이 없이 습득될 수 있는 현시적 어휘가 있다. '파랗다'와 같은 단어는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시적 어휘들을 기초적이라 하지 않는 까닭은 다른 단어의 습득을 위해 이들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맞다'라는 단어는 또는 이 단어에 의존하는 다른 어휘들은 비현시적 어휘들의 습득이나 의미론적 관계의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고자 한다. '맞다'라는 단어는 凹형 삼각형과 凸형 삼각형의 관계의 예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단편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지하고자 하는 가설은 이 관계는 이보다 더 체계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적자생존의 진화론적 관점은 우리의 가설을 위하여 호소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Dummett, M(1978). Truth and Other Enigmas. Harvard University Press.
- Keller, E.F(1987). Reproduction and the central Project of evolutionary theory, Biology and Philosophy. 2. 383-396.
- Kripke, S.A(1982). Wittgenstein on Rules and Private Language. Oxford: Basil Blackwell.
- Leeds, S(1973). Theories of reference and truth. Erkenntnis. 13, 111-129.
-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olume XII (1988): Realism and Antirealism.
- Waters, C.K(1986). Natural selection without survival of the of the fittest. Biology and Philosophy. 1, 207-225.